

20세기 최고의 크리스천 지성 존 스토트 소천



존 스토트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이자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John Stott) 영국 성공회 신부가 27일 오후 영국 런던에서 노환으로 소천했다. 향년 90세.

존 스토트 미니스트리의 호만 벤자민 대표에 따르면, 그는 노환으로 많은 고

난과 약함을 체험해 오다 몇 주 전부터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고, 이밖에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소천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9시 반이면 어김없이 귀가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학생", "마틴 루이드존스의 동역 제안에도 불구하고 성공회 소속으로 남아 교회 연합을 꿈꾸었던 복음주의자", "거창한 타이틀을 거절하고 누구에게나 '영를 존'으로 불리고 싶어 했던 친근하고 겸손한 목회자",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청년의 영적 아버지로 일생을 헌신한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전부 그를 수식하는 단어들이다. 존 스토트 신부는 1921년 영국 런던에

서 태어나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했다. 1942년 성공회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런던의 올 소울즈 교회와 성 바르나바교회에서 사목으로 목회 사역을 수행했다. 한 교회에 90년 가까이 출석하면서 65년간 부제와 교구사제, 명예사제로 섬겼다.

목회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만 86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는, 2007년 영국에서 열린 케직 사경회(Keswick Convention)에서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모든 공직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그는 영국 내 성공회 목회자 은퇴 시설에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1974년 영국을 비롯한 범세계적인 복음주의권의 지도자로서 그는 로잔 언약 입안자로 참여했고, 그 후로도 로잔 운동

에 참여하여 적극 활동해 왔다. 그는 전 세계의 복음주의 운동을 한 차원 높은 거성으로, 한국에도 기독교대학원(IVF) 등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위대한 학자인 동시에 저술가로서도 명성을 떨쳤다. 반세기가 넘도록 같은 비서와 일하면서 『기독교의 기본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로마서 강해』,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등 5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 그의 책은 67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밖에 그의 저서는, 그만의 명쾌함과 힘찬 열정 그리고 죽음을 가까이 바라보는 영적 거인의 인간적인 면모가 곳곳에 배어 있어, 많은 크리스천들의 심금을 깊이 울렸다.

정한나 기자

27일 쏜 런던서 노환으로... 향년 90세

"노르웨이, 포용과 평화로 테러에 맞서고 있다"

현지서 사역 중인 UBF 진요셉 선교사 인터뷰

1백여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테러 사건을 겪은 노르웨이에 전 세계 사회와 교계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보내고 있다.

한국 사회와 교계도 노르웨이 국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의 현지 분위기와 반응,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을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노르웨이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UBF(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진요셉 선교사에게서 들어왔다.

진요셉 선교사는 동역자인 진마리아 선교사와 함께 2004년 노르웨이에 파송돼 각각 의사, 간호사로 일하며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고 있다. 한편 이번 노르웨이 희생자수는 76명으로 정정됐다.

-먼저 깊은 위로를 전한다. 유럽에서도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손꼽히던 노르웨이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전 세계가 충격을 표하고 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떠한가.

"평화로운 금요일 오후, 휴가 기간에 일어난 연쇄테러 소식은 노르웨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믿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사건에, 전 국민이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에 빠져 있다.

▶관련기사 5면'종합'으로 이어집니다.

새 출발하는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목사 취임

박형은 목사 취임사, "앞으로 같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자"



담임목사로 취임한 박형은 목사와 그 사모

동양선교교회 제5대 담임목사 박형은 목사 (Jim-Bob Park) 취임예배가 동양선교교회 41주년 기념예배가 진행된 24일 오후 4시 개최됐다.

15세 목회자인 박형은 목사는 나성영락교회 EM을 12년간 담당하고 세크라멘토 연합장로교회 교육전도사, 데이비스대학교 영어부 전도사, 상향 제일장로교회 교육전도사, 상향연합장로교회 영어목회 목사 등 2세 목회를 20년, 1세

목회는 텍사스 빛내리교회에서 4년 경력이 있다. 이날 취임사에서 박 목사는 "지난 12월에 특별새벽기도 인도 부탁을 받고 와서 주의 종을 기다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봤다. 그 모습을 보며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한가 느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만은 아닙니다'하고 기도했다"고 전하며 "그러나 부름 받아 나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각오한 길이라 이 길에 나셨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이어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이 자리가 있다. 앞으로는 저와 같이 눈물 흘리며 웃으며 삶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 핵심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권면한 이승종 목사(샌디에고 예수마음교회 담임)는 "하나님의 종은 지배자가

아니고 지도자이다. 지도자는 이 땅에서 싸워 이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은사로 하늘의 권위를 갖고 승리한 사람이다. 불신자가 이 교회를 보고 있다. 이 교회가 살아야 된다"고 했다.

또한 이날은 한국 할렐루야교회 담임 김승욱 목사,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나성영락교회 EM 담당 마이클 리 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류종길 목사, 남가주 사랑의교회 EM 정스태반 목사, 나성영락교회 원로목사 박희민 목사,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 등의 영상 축전도 준비됐다. 이외 LAPD 올림픽 경찰서 전 서장 매튜 블레이크와 신임 서장 티나 니에토 등 외부 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취임예배가 진행된 같은 시간 교회 밖 KFC 앞과 웨스턴 에비뉴 선상에는 작년 임동선 목사와 같이 출교된 38명의 교인이 주축이 된 한 무리가 6월 26일 치



서약하는 동양선교교회 교인들

러진 공동총회의 박형은 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가 부정투표였다는 것을 골자로 한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어 놓기도 했다.

동양선교교회 내분은 교회 주창장 부지 매입과 의혹과 당회 불법 해산을 놓고 시작돼 4년여간 계속됐으며, 법원의 당회 복구 명령과 강준민 목사의 사임으로 2009년 11월 초 일단락됐다.

오상나 기자
saoh@chdaily.com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LICENSED SMOG CHECK, DEALER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www.easy2424.com

브라이언 타팔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브라이언 타팔라 변호사 213-386-5500

한솔종합보험 (주) www.hansolins.com Lic.#0E35909
생명보험 • 사업재보험 • 재정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건강보험

Medicare에 관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급변하는 Medicare 규정의 궁금하신 점들을 이번 세미나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Medicare를 가지고 계시거나 가입하셔야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eminal News

주제 : 연방정부제공 시니어 건강보험인 Medicare 확실히 알고 사용하기
강사 : 한솔 시니어 서비스 데이빗 강 (메디케어 스페셜리스트)

시간 주제 발표 40분 질의 응답 20분 개별 질문 30분 내용 1. 메디케어란? 2. 메디케이드(메디-캡)란? 3. 메디케어 관련 건강 보험의 종류 4. 메디케어 관련 각종 혜택의 범위	일시 7월 31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벨렝장로교회 (담임목사 변영익) 857 S. La Brea Ave. LA, CA 90036 문의 ☎ (323) 937-1733	일시 8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성) 1829 S. Western Ave. LA, CA 90006 문의 ☎ (323) 732-7356
--	--	--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는 한솔보험



토렌스제일장로교회에서 24일 오후 6시에 전교인 기도회가 열렸다.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내가 불같이 오실 때에 내리사 멸하시리라... 토렌스제일장로교회(담임 김준식 목사)에서 24일 오후 6시에 전교인 기도회가 열렸다.

한 김준식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라며 "첫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날 기도회는 회개와 치유, 사명, 선교, 2세 자녀들, 회복 등의 기도제목을 놓고 40여 분간 진행됐다."

토마스 맵 기자 thomas@chdaily.com

말 못하던 나에게... "이건 기적과도 같아요"

LA 사랑의교회, 정태기 목사 초청 집회 열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 출신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1761~1834)가 말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으킬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정태기 목사(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원장)는 전했다. LA 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가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 2011 여름성령축제의 강사로 초청한 정태기 목사는 24일(주일) 1부 예배에서 "나는 왜 여기 있는가?"(창세기 15장 7절)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태기 목사는 '협한 전라도의 한 섬으로 시집과 10년간 아이도 못 낳고 남편, 시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쫓겨간 여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다. 시집에서 쫓겨간 여자는 죽음을 결심하고 소문으로만 들던 서울 한 강으로 향했다. 밤에 한강을 향해 용산 거리를 걸던 여자는 수백 명이 모여서 하는 듯한 노랫소리에 이끌

었다. '구경이나 한번 하고 죽자' 싶어 '가마니'로 만든 문을 짓고 들고 가니 '가마니'를 깔고 앉은 500-600명의 사람이 즐거워 어쩔 줄 몰라 하며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 했던 교회였다. 그때 당시 유명했던 이성봉 목사가 나와 마이크 없이도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시집살이하느라고 한이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양반 쌍놈에 한이 맺힌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소작 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사람들아"하며 한이 풀린다"고 외쳤다. 이 목사가 '시집살이하느라고 한이 맺힌 여인들아' 할 때는 꼭 10년간 한 맺힌 이 여자의 가슴 속의 응어리를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이 여자는 '예수가 누구든 나 같은 여자도 가만 받아준다고 할까?' 하며 비 오듯 눈물을 쏟았다. 울다 울다 쓰러져, 가지고 간 보따리에 얼굴을 파묻었을 때 '예수가 누구든...'만 되뇌었다. 이성봉 목사는 그날 일기에 '예배가 끝나고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애간장을 땀어대는 여자 울음소리에 마음이 매어 차를 못 마시겠다'고 적을 정

였다. 사람들 앞에 서면 다리가 덜덜 떨려 재봉틀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다. 그 현상은 35세까지 끝나지 않았다. 30세에 시카고 노던 신학교로 유학 왔지만 5년간 동료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정 목사에게 전액 장학금도 주기 아까우니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교수들이 결정했을 때, 그 학교에 부임한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웨인 오츠 목사가 정 목사를 불러 캔터키 레싱턴의 치유공동체에 보냈다. 정 목사는 그곳에서 치유를 경험했다. 참여한 후 5개월 만에 사람들 앞에서 담담히 말할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 세계를 누비는 무대 체질로 변화됐다. 정태기 목사는 "이건 기적이요. 저한테는 기적이요. 웨인 오츠 박사도 저에게 그렇게 살다가 간암에 걸려 죽던가, 정신병원에 가던가 할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태기를 돌보시려고 저를 부르신 게 아니겠어요?"라고 말하며 "지금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오상아 기자

LA ORT 취업전문 직업대학

[연방정부 학력공인, 이민국 SEMS 인정]

▶ 영어 과정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시민권, 영주권, 저소득층 유자격자

- 다양한 직업교육 8-12개월
- 자격증 보조금 지급
- 고수입 알찬 직업 추천



상담: 플라워 박

1.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건축실제, 의사보조, 약사보조
2.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아카데미 AAS 학사취득, 그래픽, 포토샵
3. 유학생 L20 발급, 방문비자 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가능
4. 유학생은 LA ORT 졸업 후 워크퍼밋,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 556-5386
Cell. (213) 434-8128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이민신학연구소, '서베이 중간 보고의 밤' 개최

8월8일 오후 6시 아주사 본교서 열려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 박사)가 8월 8일 오후 6시 아주사 본교에서 '서베이 중간보고의 밤'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이민신학연구소와 내셔널 서베이 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4천여 북미주 한인교회의 실태조사(내셔널 서베이)에 대한 중간 보고 및 위로를 위한 것이다. 행사에는 내셔널 서베이 조직위원회 공동위

원장 목회자, 후원 교회 목회자들, 아주사 대학교 한국계 교수, 은혜교회에서 내셔널 서베이와 연구소를 위해 봉사해 주신 직분자들 신학자 그리고 교수 등 50여명이 참여한다. 행사 관계자는 "내셔널 서베이 위원장님들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의 중간보고가 필요한 시점에 있기에, 아주사 대학 음대 악기팀의 연주 등의 아름다운 화음이 펼쳐지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내셔널 서베이는 1세 목회자, 2세 평신도, 타민족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다. 1세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은 교회 정보, 주일 예배 설교 준비기간 등과 설교와 목회, 영어 목회와 바람직한 방향 등의 향후 목회 전망 등이다. 2세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질문은 1세와 2세간의 관계, 2세 사역자에 관한 질문 등이다. 문의) 714-341-0036

이태근 기자 tglee@chdaily.com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박희민, 이원성, 박기호, 범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조요한 편집국장: 토마스 맵 광고국장: 이민규
지사망: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213) 739-0403
팩스: (718) 228-9506 /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이 있는 분
-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미주 한인기독교 총 연합회 (K.C.C.A)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금번 미주 한인 기독교 총 연합회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진 명단

-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서부)
- 상임회장: 전영현 목사(동부)
- 수석공동회장: 황의춘 목사(동부)
- 공동회장: 민종기 목사(서부)
- 공동회장: 김동욱 목사(남부)
- 공동회장: 임형태 목사(중부)
- 사무총장: 황경일 목사(동부)
- 총무: 박용덕 목사(서부)
- 서기: 유영일 목사(서부)
- 부서기: 윤사무엘 목사(동부)
- 회계: 김원락 목사(서부)
- 부회계: 최문선 목사(중부)

분과 위원 명단

- 교회일치화합 윤리위원회: 김중덕 목사(동)
- 신학연구회: 김인수 목사(서)
- 노후대책위원회: 배현수 목사(동)
- 상호친목위원회: 김성일 목사(서)
- 선교정책개발위원회: 한기홍 목사(서)
- 이민교회성장연구위원회: 오영운 목사(서)
- 사회봉사참여위원회: 윤장영 목사(서)
- 2세목회자양성위원회: 원종훈 목사(중)
- 남북선교협력위원회: 장성민 목사(남)
- 대외협력위원회: 김하워드 목사(서)
- 북한교회재건위원회: 이동학 목사(북)
- 정의사회평화인권위원회: 김학수 목사(북)
- 조국통일위원회: 강승호 목사(동)
- 이단대책위원회: 이종명 목사(동)
- 전국평신도지도자연합회: 김일 장로(북)
-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정제니퍼 권사(남)
- 전국기독교실업인연합회: 구에드워드장로(서)
- 전국기독교문화예술위원회: 신동식(동)



취임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이임 대표회장 장성식 목사

- 일시 2011년 8월 2일 화요일
- 저녁식사: 오후 6시 / 예배: 오후 7시
- 장소 미주평안교회 본당 (2가와 버몬트)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 TEL (213) 381-2202 / 9231
- ※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미주 한인기독교 총 연합회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새벽강단49)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 김경섭 목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입술로 축복을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일은 남가주 한인 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영락교회의 담임 김경섭 목사는 새벽강단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 선교 사역자라고 이야기 한다. 모두 잠자는 이른 새벽에 나와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웬만한 각오와 결단이 있지 않겠는 힘든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무더운 7월 말 가진 새벽강단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성숙한 언어생활에 달려 있다."라며 "성령께서 혀를 길들여 무의식 중에서도 찬송과 축복과 감사를 말할 하자. 또한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말을 하도록 하자."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다. 다음은 말씀 요약문.

〈야고보서 3장 1-2절〉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말을 사용하면서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남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3만 5천 단어를 말한다 합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2만 단어를 다 썼는데, 아내는 아직 1만 5천 단어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남아 있는 1만 5천 단어

를 사용하려니까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말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약3: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정말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속에는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부득이 하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 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누가 가장 많이 실수할까? 당연히 말을 많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면 누가 가장 많은 말을 하지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말로 실수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이나, 말을 많이 하게 되는 분들이 혹시 실수를 하게 되면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저는 2절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를 꼽으려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야고보 자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경건과 영성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나도 말에 실수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합

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열 받고, 화를 내면서 저 인간은 원래 저래 하면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말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말에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했어 시편141:3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정제하게도 만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환경을 바꿉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없고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면 우리의 혀는 길들여 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입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건방진 말 한마디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겸손한 말 한마디가 인격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겸손의 언어가 여러분의 거룩한 입에서 나오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가 성숙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혀를 길들여 무의식 중에서도 찬송과 축복과 감사를 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전해주는 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입술로 긍정의 말과 축복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토마스 멩 기자

“요셉도 이민자, 하나님의 복 나누는 삶 사시길”



림형천 목사가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태근 기자

나성영락교회, 이민목회자 자녀에게 15만불 상당 장학금 전달

'선교사의 자녀로 자란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많은 나라를 다니며 살았습니다. 히말라야 산이 보이는 네팔에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집을 지어준 기억도 있습니다. 가난한 여러 나라의 아이들을 보며 의료선교사가 되어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장학금 수여자 오인애 학생)

나성영락교회(담임 림형천 목사)가 25일 오후 6시 나성영락교회 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이민목회자 자녀 장학금 수여식에서 15만불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1천불씩 150명의 학생에게 전달됐다.

지만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냈고, 언제나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기에 온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됐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나성영락교회는 이민목회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유일한 교회로, 해마다 200~300여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교회는 장학금 수혜의 혜택을 많은 이들에게 주기 위해 한 학생에 4회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태근 기자

MOM선교회, '먹거리' 주제로 세미나 개최

충남대 이계호 교수, 감사로 나서



이계호 교수

MOM 선교회(남가주 지부 디렉터 안기주 집사)가 23일 남가주비전교회에서 태초의 먹거리와 현대의 먹거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감사로 나선 이계호 교수(충남대 화학과 교수, 식약청 연구위원)는 "건강한 몸은 무조건 깨끗한 물보다는 미네랄이 있는 물이다. 음식을 먹을 때 30번 이상 꼭꼭 씹어야 하며, 현미는 50번 이상 씹어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색깔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덧붙였다.

토마스 멩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수혜자 들게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CA LIC #0G67882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교회 기념타올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Shepherd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는 2011년 2월, ATS 정회원 자격을 위한 Candidacy Status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버드신학대학, 예일신학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풀러신학교, 탈벗신학교, APU신학대학원 등 미국의 유수 신학대학들과 학점교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TS는 미 고등교육인증협회(CHEA)와 미 문교성 (USDE)으로부터 공인 승인된 미 연방 학력인증 기관입니다.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본교 MDiv 및 DMin 학위와 학점은 미국 모든 신학교에서 인정됩니다.

쉐퍼드 신학대학(원)은 신학과 영성, 성경과 신앙의 균형있는 교육을 통하여 "For the Lord, To the World"의 기지로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통역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일정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로 영어와 학위프로그램 이수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신학대학 프로그램	학위	프로그램	학점
학사	B.A.B.S.	128	입학문의전화 213.481.1313 신학대학 교무과 김은의 계장
석사	M.Div	96	
박사	D.Min	42	

쉐퍼드대학교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info@shepherduniversity.edu www.shepherduniversity.edu

진보대학 총장이 말하는 신학이념



한신대학교 제 5대 채수일 총장

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 해야 할 일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린 북미주 한신선교대회에서 만난 한신대 채수일 총장의 말이다. 진보신학자이자 대학 총장으로 그가 지닌 신학적 이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맨 먼저 대화가 그 본질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도 세계와 대화하는 형식의 하나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대화’하고자 함이요, 성육신의 이유 또한 ‘대화’에 있다”면서 세상의 구원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대화’가 그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신학이란 전통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선교를 돕는다는 의미이자 교회 교권에 예측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섬기되 교회를 비판적으로 섬기는 것이 신학의 본래의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진보신학의 오랜 신학적 담론 ‘하나님의 선교신학’ 19, 20세기 초 서구 선교에 대한 반성, 선교 영역과 한계 철폐에 기여

그에 따르면, 기성과 한신신학의 오랜 신학적 담론의 주류를 이룬 ‘하나님의 선교신학’은 1950년대 이후 세계 진보신학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요한 전거였다. 이는 백인 유럽 선교사 중심의 선교, 일방통행적 선교, 서구 문명 우월주의의 선교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선교신학’이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선교의 영역과 한계를 철폐했다는 것이다.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에 ‘세상 끝’이라는 건 영토적인 경계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온 영역’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선교의 제한적 영역을 철폐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 하나님의 선교신학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동구권이 붕괴되고 동서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이데올로기 보다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강화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교 개념만으로는 오늘날 복잡해진 세계 현실 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선교신학 개발 필요성 대두... 우리 시대 중요한 화두는 ‘생명’

생명살림 ‘회년신학’ 이 그 대안 이에 따라 새로운 선교신학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채 총장은 경제 양극화 현상, 구조적 빈곤 문제를 비롯해 생태계 위기 문제 등 시대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신학적 담론으로서 래우기에 나오는 ‘회년 신학’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있다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본질을 둘러싸고 생물학자, 의학자들조차 그 본질 규명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지만, 생명에 대해 학문간 공통점으로 ‘생명 현상의 관계성’을 그 본질로 본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비롯해 모든 생명의 본질은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관계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을 이른바 ‘죽임의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죽임은 죽음을과는 다릅니다. 죽임은 매우 구조적인 문제이며, 상당히 의도된(계획된) 살인이자 파괴라는 점

에서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죽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간과 피조물을 죽이는 구조적인 악의 문화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채 총장은 “당연 ‘전쟁’이 죽이는 문화요, 경제적인 이유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종교간 분쟁, 에이즈, 빈곤 문제, 구조적인 차별문제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죽이는 우리 시대의 ‘문화’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왜 하필 ‘문화’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이 죽임이 개별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집단적·구조적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문화’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오늘 우리 시대에 추구해야 할 신학적 담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생명’”이라면서 “이 생명을 파괴하는 현실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생명 신학의 과제’요, 우리 시대 한신이 추구해야 할 신학적 담론이요, 선교 신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하나 기자 hannah@chdaily.com

미주복음방송 1만 구좌 모금, 재헌신의 날 앞뒤

7월 초 현재까지 1,532 구좌 약정

올 2월 25일을 기해 24시간 방송을 시작한 미주복음방송(사장 박신욱 목사)이 자체채널 AM 1190 영구 구입을 위해 오는 29일을 재헌신의 날 및 공개 모금의 날로 정했다.

미주복음방송이 자체채널 AM 1190 구입에 필요한 금액은 총 1천 2백만 불로, 미주복음방송은 이를 위해 2010년 2월부터 1,200불을 한 구좌로 1만 구좌 모금을 시작했다. 그 결과 올 2월까지 약 2천 구좌가, 7월 초 현재까지는 1,532 구좌가 약정됐다. 자체채널 AM 1190 구입은 올 2월까지 모금된 300만 불과 은행 융자 900만 불을 더해 이뤄졌다.

미주복음방송 사장 박신욱 목사는 “지난 3월 이래 모두 500구좌가 새롭게 약정됐다. 연재가는 1만 구좌가 채워져 은행 용자를 다 갚고 AM 1190 스테이션을 온전히 하나 님께 봉헌해 드리는 날이 올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미주복음방송은 선교 회원들에게 재헌신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한 구좌를 약정할 것, 가까운 형제와 친구가 또 한 구좌를 약정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을 제시했다.

미주복음방송은 1991년 2월 미국 방송사의 채널을 4시간 임대로 시작해 1996년 10시간 방송의 시대를 거쳐 올 2월 25일부터 24시간 방송의

시대로 도약해 AM1190과 FA88.3 특수 수신방송, kgbc.com 인터넷 방송과 아이폰, 드로이드폰으로 전 세계에서 청취할 수 있다. 한편 29일 공개모금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전화(213-381-1190), 당일 생방송 연결(213-365-1190), 현금 접수처로 직접 가서 약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처〉
LA: 방송국(213-381-1190)
세리토스:시온마켓
풀러튼: 한남체인
가든 그로브: H Mart
얼바인:얼바인침례교회
로렌하이츠:그린랜드마켓
토렌스: 한남체인

오상아 기자

목사와 장로의 행복한 동행



최홍준 목사@기독교일보 DB

목양 장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왜곡된 본질을 회복해 ‘목사와 장로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2011 미주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가 서부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와 동부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린다.

서부 컨퍼런스는 8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동부 컨퍼런스는 8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진행된다. 두 강사는 최홍준 목사(부산 호산나교회 원로목사, 국제목양사역원 원장), 홍민기 목사(호산나교회 후

목양장로컨퍼런스, 서부-세리토스장로교회, 동부-와싱턴중앙장로교회

임목사), 정현 교수(리버티신학대학원), 송일영 목사(호산나교회 목양장로사역담당) 등이다. 등록비는 7월 31일까지 \$140, 8월 15일까지 \$160이며 문의는 한국호산나교회 송일영 목사(82-10-5891-9911), 홈페이지 www.hosanna21.com에서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추천사를 전한 박성규 목사(부전교회)는 “전세계를 둘러보면 한국교회보다 어려운 것이 서구의 교회 또는 이민교회라 할 수 있다. 5년 간 이민교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이민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갈등,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이고 목회자의 역할,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역할 간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됐다. 목양장로컨퍼런스는 이민교회에 더 시급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의

핵심주제인 ‘목양장로’란 제자 훈련의 연장선상으로, 목양장로 사역은 제자훈련을 받아 영적으로 성숙한 장로의 본질을 회복해 동력화시켜 목양에 뛰어들어 성도들을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돌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행정 위주의 장로 사역이 아닌 목양의 현장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 시간을 쏟고, 열매를 체험하고, 성숙을 향해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목양사역을 이해하고 목사의 동역자로 거듭나게 된다.

최홍준 목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모의 사이가 좋아야 자녀들이 행복하듯,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부모와 같은 목사와 장로의 사이가 좋아야, 자녀와 같은 평신도들이 행복하다. 이런 장로 역할을 재조명하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목양장로’ 사역이다. 목회자와 장로가 함께 컨퍼런스에 참여해 함께 이 본질을 세워갈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참여를 권했다.

박현희, 권나라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푸엔티 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usajyk@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LEE & KENT LAW FIRM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가족이민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비자거절·항소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형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상법(계약체결·위반)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신용 문제 상담

[특별상담]

- 비자 거절
- 영주권 거절
- 추방재판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대 (1993년)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캘리포니아 자문변호사 정회원 변호사 연방법정 및 세관관할 정회원 변호사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합회회원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dens, Brothman, Knauer 국제재정/투자법/이민법/상법 전문변호사

이문규 법률그룹 LAW FIRM
대표전화 213-380-2828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2-7
영동빌딩내 더블유 오피스J7호
02-541-0556

“미약 중독 넘어 해방의 기적 만듭니다”



새소망선교회 박윤경 전도사

쓰러진 청소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 박윤경 전도사

5년전 딸이 코케 인이라는 마약에 연루된 일이 있었다. “엄마, 나 좀 살려 줘요! 도와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도저히 나 혼자선 끊을 수가 없어요.” 주먹같은 눈물을 푹 푹 흘리면서 울부짖는 딸을 보면서 엄마는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은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딸은 이미 마약에 중독되어 코에는 께양이 생겨 코피가 나고, 살이 빠져 온몸이 반점투성이였다. 혼자 힘으로는 마약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유약해진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수없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속죄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다.

일리노이주 일원을 중심으로 한인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대책 및 가정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새소망선교회 박윤경 전도사의 이야기다.

◆영학 같은 나의 삶

그는 당시 딸 아이의 마약치료 재활기관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시카고 지역엔 마땅히 도움 받을 곳이 없었다. 그러다 LA에 있는 나눔선교회를 알게 됐고, 다음날 딸은 LA로 날라갔다. (나눔선교회는 술과 마약, 갱남과 같은 폭력적으로 얼룩진 청소년들을 모아 그들의 쓰러진 삶을 회복시키고 재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스스로 개척해 가도록 돕는 재활센터다) 그곳에서 딸은 재활치료를 받고 회복돼 지금은 오히려 박 전도사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독자에서 이제 ‘치료자’로 거듭나

말씀이 그녀의 삶 가운데 깨달음 되어와 용서와 사랑의 세계가 깨달아지니 세상이 달리 보였다. 전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그리고 이제는 마약 중독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하나님이 저를 먼저 구원해주셨고 저의 딸도 살려주셨기에 이제 마약으로 신음하는 다른 영

혼들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더이상 그는 상처입은 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상처입은 치유자가 됐다. 현재 시카고 북부 지역에서 마약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상한 영혼을 위로하고 보듬는 사역을 하고 있다.

◆만연된 청소년 약물남용 심각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사각지대’란 없는 법.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교생 10명 중 8명이 마약 흡입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리노이주 한인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 보편화되고 있는데다 그 연령층도 10대 초(12-14세)로 점차 낮아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이상 마약 중독이 범죄집단이나 불량배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미 문화적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박 전도사는 “이대로라면 얼마 되지 않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의 가정들이 약물 문제로 더 많이 관여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인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대책에 학부모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에 따르면, 미주 한인청소년들이 겪는 갈등에는 미국 문화에 대한 중앙감과 가족간의 대화 부족, 부모와의 갈등 등이 존재한다. 이민가정 내에서 자라난 이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힘을 얻지 못한채 문제가 생겨도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지기만 한다.

또 부모는 책망만 하면서 상태는 점점 악화된다. 자녀가 마약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2-3년 뒤라고 부모들은 고백한다. 좀 더 빨리 알지 못하고, 좀 더 일찍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만, 부모들은 마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 속수무책이다.

일반적으로 마약 중독자들은 만신창이가 되어 몸도 못가누고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못할 거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마약은 하면서도 펜상시와 같이 직장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 성적만 좋으면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자녀들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다. 이로 인해 결국 중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청소년 마약 중독, 무엇보다 조기 예방이 중요”...갈등 예방의 Key는 ‘대화’

박윤경 전도사는 무엇보다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를 비롯해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행복한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자녀들이 탈선하게 되는 데는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부모로서 아이들의 이야기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때문에 이민 와서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녀들을 들들 부는 장면이 종종 연출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민 온 것도 자식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과 보상심리로 인해 자녀들은 점점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박 전도사는 “부모가 먼저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부모와 자녀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진정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가정문제는 올바른 ‘대화법’에 그 열쇠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하나 마약 문제가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굶아터질 때까지 숨기는 ‘한국식 체면문화’다.

그는 “이 체면문화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약물 중독을 감추려하고, 인정하기 어려워한다”면서 “모르는 척 쉬쉬하고 덮어 두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고 경고했다.

부모 스스로도 부부 갈등, 대화 장애, 자녀와의 갈등, 신앙 또는 경제적인 문제들로 갈등하면서 드러내지 못해 상담도 도움도 받지 못하고 끝내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가 약물중독에 빠졌을 경우 부모가 감추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함께 치료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예방 교육 차원의 새소망선교회 정기세미나 ‘행복한 가정 7층 집짓기’

한편, 새소망선교회에서는 오는 30, 31일 자녀들의 마약, 가출, 가정폭력, 부부들의 이혼 및 갈등으로부터 안전한 가정만들기 등 총괄적인 가정사역에 대해 소개하는 ‘행복한 가정 7층 집짓기’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주강사로는 성신여대 교수인 채규만 임상심리학 박사가 나선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등지에서 부부 치료 전문가이자 임상심리전문가로 활약해온 채 박사는 그동안 검증된 학문적 자료와 더불어 더불어 실천상담을 통해 얻어진 경험 등을 소개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햇빛 재단(김영일 목사)과 시카고 치유목회 상담원(정상균 목사)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건강한 가정과 부부들의 특징 ▷역기능적인 가정 회복하기 ▷미국 사회의 문제에 저항력 있는 가정의 비결 ▷알콜중독 부부 사랑의 비결제공과 실습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다. 세미나 장소는 노스웨스트 장로교회(301 Ridge Ave, Elk Grove Village, IL)이며, 관련 문의는 847-873-2974(박윤경 전도사)로 하면 된다.

시애틀형제교회 VBS 475명 참가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의 VBS ‘Toon Town 2011’이 지난 11일 부터 15일 까지 닷새 간, 475명의 유초등부 아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시애틀형제교회 제공)

올해 VBS 역시 형제교회 선라이트 유초등부 학생뿐 아니라 커뮤니티의 타 인종 학생들이 다수를 이루며 형제교회 VBS가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형제교회 권준 목사는 컬럼을 통해 “세상은 날로 악화되고, 그 악의 무리들은 더 지능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용사로 키워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VBS 기간 250여 명의 청년, 직장인 자원 봉사자들이 아이들을 섬겼으며, 매일 오전 4시간 넘는 중보 기도팀이 VBS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한편 형제교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커뮤니티 교회들의 VBS를 위해, 교회에서 제작한 VBS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브라이언 기자 seattle@chdaily.com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김금옥 목사 회장 취임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가 제 3기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7월 25일 오전 10시 할렘루야뉴욕교회에서 열린 예배에는 곳곳에서 여성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가 제3기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하는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는 앞으로 격월로 정기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이 외 임원 및 분과위원 모임은 격월로 갖기로 했다. 윤주이 기자 jooiee@chdaily.com

먹고 빠르게 하는 알로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 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오토뱅크 Auto Bank

\$1,000 ~ \$7,000 중고차 다량 보유

저렴한 차 사고 팝니다.

충분한 워런타기간 / 고장시 지정 정비소 통한 수리 (30%ADC)

John Ko 213-908-3308 http://joencha.com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8월 1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빠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트)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130 Wilshire Bl. #405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당뇨, 고혈압 전문 한의원

전 세계에 알립니다. 당뇨, 고혈압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고 싶은분은 빨리 예약하셔서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8/31/11 11시까지 전화예약 하는분에 한해서 각종 프로그램 60% Off 해 드림

이번주 강의: 약을 끊으면 왜 좋은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디를 가도 당뇨, 고혈압에 걸려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약을 거의 다 끊고도 수치가 어느정도 정상이 된다는것은 놀라운 일이고 정말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인데 Radio Interview에서...다 끊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믿기 힘듭니다. 등의 사례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약을 끊으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약은 빠른증상 개선은 좋지만 장복하다보면 또 하나의 부작용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약을 줄이거나 해방될수만 있다면 이것은 더이상 바랄것이 없이 좋은겁니다. 당뇨환자들이 약에만 의존하다 수치가 정상인데도 무서운 합병증으로 눈이 안보이거나 신장투석 다리절단고사, 심장병, 뇌경색, 중풍으로 고생하다 힘들게 되는데 어느정도 약을 줄이거나 벗어나야합니다. 합병증의 고통과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 지식의 무지에서 탈피해야되고 무분별한 음식섭취, 잘못된 지식을 바로 이해해야합니다. 진단을 통해서 자연의 원인치료를 하게되면 놀라운 내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러사람들이 놀랍고도 경이로와하는 특별기획, 봉사를 통해서 소중하고도 뜻깊은 만남, 놀라운 치료의 기회시간을 갖으세요. 믿어지지 않는 높은이론, 이 세상에서 모두가 꿈꾸는 자연진료방법,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시술, 수많은 임상사례, 그냥 세월가다 망막증, 다리괴사, 신장병, 절단등의 불가피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몸, 건강을 기쁘게 하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과 희생속에 얻은일은 기쁘겁니다. 올바른 가르침, 준비된 생활, 건강도 올바르게 서 있어야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잘못과 화를내고 실망을 하고 우리의 내면과 영혼과 생각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슬퍼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장기도 약해지고 아파합니다. 노력하고 사랑하고 근면하고 훈련된 절제의 생활, 이해와 인내와 바른관계와 생활, 올바른 모습, 약속된 능력, 자기의 정체성 또한 준비된 생활이 건강도 또한 바르게 되는것입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방진단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어하는것을 좋아할수있는 부정속에 긍정과 가르침을 알고 내몸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내몸은 스스로 기뻐 춤을 추게 됩니다. 더이상 실수했던것을 되풀이 말아야 합니다. 발전속에 새로운 것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새롭게 원하는 평안의 마음과 형태로 다가옵니다. 두려워말고 걱정하지말고 자연의 한방요법으로 무엇을 진정으로 선택을 알고 우리몸을 기쁘고도 기쁘게... 건강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저렴한 비용, 놀라운 한방의술로 고통과 불편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감사와 신뢰와 유익한 건강이 되도록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연구하는 한의원으로 서 있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힘든 질병에서 벗어나게끔 믿기 힘든 획기적 증상개선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너무나도 좋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 세계속의 한의원

각종 프로그램 소개



1. 강심장 청소혈관 프로그램 (심장을 건강하게)
2. 복부비만 관리 프로그램 (날씬하고 아름답게)
3. 간장해독, 맑은눈 증상개선 프로그램 (맑은 눈이 필요)
4. 오십견, 요통, Disk, 좌골신경통 프로그램 (빠른 증상개선)
5. 암예방 면역강화개선 프로그램 (면역력 증강개선)
6. 건강한 폐, 알러지, 기침, 해수개선 프로그램 (폐를 강하게)
7. 요실금 개선 방광염개선 프로그램 (여성이 꼭 필요)
8. 화끈거리는 갱년기 증후군, 골다공증개선 프로그램 (자연적으로)
9. 획기적인 장수건강개선 프로그램 (몸을 보하면서 편하게)
10. 어린이 성장탕, 총명탕, 아토피개선 프로그램(너무 좋음)
11. 자연미인 프로그램 (아름다운 피부, 가슴관리)

1예 - 당뇨병 당뇨병으로 6알정도 복용하던 중 청한의원에서 3개월 치료후 다 알약끊고 공복수치가 120정도 정상수치로 되었음. 본인은 너무 감사해 함	2예 - 당뇨병 당뇨병으로 한쪽눈이 안보이고 심혈관이 막혀 잠을 잘 수가 없고 다리가 부어서 걷기가 힘들었음. 5개월 치료후 당이 400정도 됐던 것이 지금은 110 정도 알약 다 끊고 이루 말할수 없이 감사해 함.	3예 - 고혈압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도 190/110정도 3개월 치료후 약 다 끊고 수치가 121/80 정도 나옴. 본인도 기적과도 같다고 너무나 고마워 함.	4예 - 흉통 원인 모를 가슴통증으로 25년간 온갖치료 무효과 여기서 한약 복용후 1개월 후 모든증상 사라짐 남편 할 어떻게 이런일이 이세상에...	5예 - 대상포진 대상포진으로 너무나 따갑고 가렵고 힘들어했을 한약 복용후 1주일 정도후에 거의 증상이 사라졌음 너무나 감사해 함.
6예 - 요통 고령의 할머니 허리통증으로 구부리지도 못하고 괴로움 호소, 특수침 맞은후 15분후 벌떡 일어났다. 앉았다하면서 원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7예 - 불임증 15년 환자가 찾아와서 임신이 안됐다가 한약 복용후 아기 낳아서 너무나 감사해 함. 이때 한의사 보람을 느낌	8예 - 현기증 3년간 너무나 어지러워 앉도 안보일 정도로 한약 복용후 1주일 정도후에 그 증상이 사라짐. 정말로 고맙고 또 고마워 함.	9예 - 성인병 할아버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중성지방으로 수년간 약 복용 3개월 치료후 약을 다 끊었음. 병원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함.	10예 - 피부병 3개월간 피부병으로 온갖치료 무효과 본원에서 치료후 그 무시무시 살벌한 피부가 뽀얗게 나타나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에 감탄.
11예 - 부인병 한 여성이 찾아와서 자궁수술 해야 된다고 걱정, 한약 2재 복용후 병원검사서 모든것이 정상, 수술 안해도 된다고 판정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 함.	12예 - 전립선 전립선으로 2번이나 수술후 피가 소변에서 철철,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꼬박 못잠. 여기서 한약먹고 침맞고 피가 뚝 멈춤. 침으로 한약 대단하구나 스스로 감동 또 감동...	13예 - 성장부진 어린아이가 밥도 안먹고 자라지도 않고 너무나 걱정 여기서 한약 복용후 너무나 밥을 많이 먹고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감사에 또 감사..	14예 - 좌골신경통 너무나 심한 좌골신경통으로 엉덩이가 뻐개지고 다리가 저려서 피 말리고 이가 갈린다고 별치료 다 해봤지만 무효과, 여기서 한약먹고 침맞고 정말 믿을 수 없이 그 고통 사라지다니...	15예 - 치질 밥 못먹고 변비, 설사, 치질 심장이 빠근 죽을것 같은 이 증상 사라지니 세상이 다시금 고마워짐

청 한의원 714 636 1412 (24hrs) 714 349 7995
 9355 Chapman Ave. #108 Garden Grove, CA 92841



"특별 절호의 기회" 놀라운 당뇨 신선단 2병 사면 1병 FREE! 당뇨병에 희소식!!

왜 당뇨신선단이 좋은가?

100% 순수한 천연 생약으로 근본적으로 혈당조절을 도와주며 혈액순환과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인체의 자생능력을 도와 스스로 인체가 균형을 잡아 증상개선을 시킴. 특히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갑자기 기운이 떨어져 힘든증상, 눈이 침침하고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손발이 저릴때 적극 추천합니다. 당뇨병을 오랜기간 약을 복용하면서도 합병증으로 심장병, 뇌경색, 눈이 잘 안보임, 다리괴사절단,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 신경염등으로 무척 고생하는데 혈관이 경화되고 노화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줄이거나 해방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과 운동으로 무척 노력하지만 그리 쉽지가 않은데 당뇨신선단은 자주 배고픈 증상, 저혈당증상을 도와주고 체중조절 및 복부 비만을 줄여주고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면 의사선생과 상의하에 서서히 알약을 줄여주며 많은 경우에 당뇨초기나 중기의 경우에 궁극적으로 약에서 어느정도 다 벗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아십니까? 약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한 정상혈당을 유지하면 그 무서운 합병증에서 미래의 두려움, 걱정, Stress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많은 당뇨환자들이 대책없이 약에만 의존하다 시간이 지나서 눈이 안보이고 신장투석하고 다리절단, 심장병, 뇌졸중으로 무서운 앞날을 기다리지 말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미래에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복용사례> LA북쪽 Valley에 사는 Mr. Lee씨는 당뇨로 15년동안 알약을 매일 4알을 복용하면서 눈도 잘 안보이고 이제는 합병증이 온다고 무척 걱정했는데 신선단 복용후 거의 알약을 안 먹고도 아침공복 혈당이 120정도 ± 되서 정말 믿을수가 없을 정도로 기쁘다 말하면서 특히 병원에서서는 이제는 인술린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 다 끊고도 수치가 정상이 되니까 의사 선생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경우라고 같이 축하해주었다고 말했고 또한 체중도 10LB 정도 빠지고 몸도 가볍고 기운도 최고의 상태라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특히 의사선생이 어떻게 이런일이 생길수 있다 했는데 주위에 친구 형제중에 알약도 3알 정도인데도 레이저수술 몇번후에 눈이 잘 안보이는분들이 있는데 하루 빨리 권해주고 싶고 아픔에서 벗어나는 건강한 삶을 위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Diabetes damages the endothelial of the arteries, choking off blood flow to the hear(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뇨병은 혈관 내역을 손상시키고 심장의 혈관흐름을 막히게 된다) 그렇습니다. 더이상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합병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그 무섭고도 무서운 시간에서 자유롭게 못하고 슬프고도 슬픈 후회가 되는 시간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정말 그 어디서도 보기도문 당뇨신선단과 함께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가지시고 노력하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은 www.shinsundan.com 을 참조 / 24시간 주문 전화 714.636.1412 / 대리점 하실분, 돈 버실분 전화요망

WEA “노르웨이 테러는 철저한 악(惡)의 징후”

하나님의 선에 반대됨 강조... 세계 회복 위한 기도 당부

세계복음연맹(WEA)이 노르웨이 테러 사건은 하나님의 선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WEA 협동총무 고든 쇼웰-로저스 박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성명에서 “우리는 용의자가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들을 읽고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서 종교적 폭력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판해 왔다”며 용의자의 사고와 행동은 기독교인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WEA 지역 연맹인 유럽복음연맹(EAE) 총무 니에크 트랩퍼 박사도 “인간이 이같은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에 공포를 느낀다”며 “이러한 폭력은 철저한 악의 징후로 간주되어야만 하며, 하나님의 선과

정의에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노르웨이 사회와 교회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기도를 약속했다. 쇼웰-로저스 박사는 “노르웨이의 강력한 기독교 역사는 내부에서 오랜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또한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 왔다”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노르웨이에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트랩퍼 박사는 가장 평화로운 나라 중 하나였던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테러는 그 어느 곳도 예외가 없는 세계의 분열과 이로 인한 붕괴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며, 노르웨이는 물론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것을 세계 교회에 당부했다.

손현정 기자

테러 용의자 브레이빅 “난 예수와 관계 없다”

범행 전 선언문에서 기독교 이해 한계 드러내

이번 노르웨이 테러 사건의 용의자인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32)이 범행 전 쓴 글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이 드러났다.

테러를 감행하기 전 몇 시간 전 온라인에 올린 '2083 유럽 독립 선언문'에서 그는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면 당신은 종교적 기독교인(religious Christian)이다. 그러나 나 자신과 또한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를 문화적, 사회적으로, 정체성이자 도덕적 기반으로서 믿고 있

다. 이것이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든다”라고 썼다.

그는 이어 현재 유럽의 상황을 문화 전쟁이라고 묘사하고, “이같은 전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는 유럽의 기독교 문화 유산을 지키기 원하고 기독교에 기반한 우리의 전통과 정치 체제를 지키기 원한다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브레이빅의 이같은 주장은 브레이빅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을지는 몰라도, 기독교인과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총 1,500쪽에 달하는 이 선언문에서 그는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노르웨이는 물론 유럽 전체를 위협하고 있지만 현 정권이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으로 이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테러를 몇 년 전부터 계획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템플 기사단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과 이들이 유럽을 공산주의와 이슬람으로부터 구원할 혁명을 이끌기 바란다고도 썼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유럽이 단일 문화의 엄격한 기독교 사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브레이빅을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보도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hjson@chtoday.co.kr

인도 교인들, 강제 개종 누명으로 처벌받아

최근 인도의 카르나타카(Karnataka) 주(州)에서 기독교인 핍박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카르나타카 주의 후블리(Hubli) 지역에서 힌두 급진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공격했다. 헤게레(Heggere)라는 마을에서 교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명의 목사와 한 명의 기독교인에게 힌두교인들이 다가와 이 두 명의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기독교인들의 가방을 뒤지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그리고 힌두교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지역 경찰서로 데려갔다. 기독교인들은 경찰서에서 6시간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이들이 종교적 민감성을 훼손했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강압적인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

발했다. 재판을 받은 이 두 명의 기독교인들은 결국 감옥에 보내졌다.

2011년 개정된 Operation World는 인도 전체 인구가 12억 1,446만 명이며, 이중 74.3%인 9억2,711만 명이 힌두교를 믿고, 14.2%인 1억7,245만 명이 이슬람을 따르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5.8%인 7,1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파산한 美 수정교회, ‘가톨릭’ 에서 매입 의사 밝혀

교회 이사회와 채권단, 법원의 검토 후 결정

미국 수정교회(담임 윌라 쉐러 폴맨 목사)가 채무 지불을 위해서 예배당을 포함한 교회 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가톨릭측에서 매입 의사를 전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수정교회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한 이 지역 가톨릭 교구는 교회 예배당을 포함해 수정교회가 내놓을 부동산을 모두 5천만 달러에 사들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당초에 수정교회가 제시한 4천6백만 달러보다 많은 액수다.

오렌지카운티 교구는 매입 후에도 수정교회가 3년간 예배당과 전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작년 10월 파산한 수정교회는 예배당과 40에이커 가량의 교회 소유지를 모두 매각해 얻은 대금으로 채무를 지불하겠다는 회생 계획안을 올해 5월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교인들을 위해서 본당 건물은 임대 통해 15년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같은 회생 계획안은 이번 여름 내로 법원의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렌지카운티 교구는 현재 이 지역 교인 수가 약 1백만명에 이르는 반면 성당의 좌석 수가 3천석에 불과해 1억 달러를 들여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고려했으나, 수정교회와 그 소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두 배 가량 저렴하다는 판단 하에 매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정교회는 아직까지 오렌지카운티 교구의 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상황이며, 언론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지 언론들은 수정교회 이사회와 채권단, 그리고 법원의 검토 이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개혁교회(RCA)에 속한 수정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설교 방송 중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

하나인 ‘능력의 시간(Hour of Power)’이 촬영되는 장소다. 로버트 H. 쉐러 목사가 1955년 자동차 극장에서 시작해,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켰으나, 2006년 그가 은퇴하며 자녀들이 리더십을 물려받은 이래로 가족 간 갈등이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1980년 지어진 예배당은 그 이름처럼 사방이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계 최대의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손현정 기자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NOM(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 주최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동성 결혼 합법화 첫날, 뉴욕 풍경



참석자가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시청을 찾은 한 동성커플이 입양한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OM 주최로 맨해튼에서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미국 뉴욕의 동성 결혼 합법화 첫날인 7월 24일(이하 현지시간), 각 보도 시청 앞에는 결혼증명서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성 커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와 더불어 이날 오후 3시 알바니, 맨해튼, 로체스터, 버펄로에서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이들의 집회가 열렸다.

윤주이 기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까?

자동차의 모든 문제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워싱턴 바디샵 으로 연락하세요.

30년 경력으로 정상가의 50%만 받습니다.

1800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워싱턴길 버몬과 노르만디 사이)

323.732.9693



현재 청빙 과정에 있는 삼일교회(좌)와 최근 청빙 절차를 마무리 한 수영로교회

대형교회들 잇따라 세대 교체... 청빙은 어떻게 이뤄지나

교회 구성원들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 필요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의 후임을 공개 모집한다는 소식이 지원자와 청빙위원회(이하 청빙위) 추천자를 통틀어 총 106명의 후보자가 접수를 마쳤다. 청빙위는 이들 가운데 20명을 선발한 뒤 약 3개월간의 인선 작업을 거쳐 최종 후임자를 고른다는데 계획이다.

국내 대표적 대형교회의 후임자 청빙에 한국교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일교회를 비롯해 주안장로교회와 수영로교회, 호산나교회, 샘물교회, 동양선교교회, 남가주 사

랑의교회 등 국내의 대형교회들이 청빙을 진행 중이거나 최근 후임자를 확정했다. 지난해 청빙을 완료한 지구촌교회와 할렐루야교회 등도 있다. 그러면 교회의 청빙절차와 진행 과정, 후임자 선정 기준 등은 어떻게 될까?

청빙은 주로 개교회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총회나 노회는 따로 청빙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해당 목회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데서 그친다. 이는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교회의 자치(自治)를 강조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청빙위를 구성해 후임자 인선 작업에 나선다. 청빙위는 통상 장로와 집사, 권사, 평신도 등에서 대표를 선출해 구성되지만 교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청빙 과정에서 혹시나 생길지 모를 갈등을 대비해 당회원들만으로 조직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투명성 등을 이유로 대학·청년부를 비롯한 평신도들이 대거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청빙위가 발족되면 바로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청빙위는

후보자 자격 조건을 정하고 이를 공고해 지원자를 받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직접 추천하기도 한다. 대부분 삼일교회처럼 지원과 추천을 함께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 지원, 혹은 추천만을 고수하기도 한다. 지난 해 김승욱 목사를 김상복 목사의 후임으로 결정한 할렐루야교회는 따로 지원자를 받지 않았고 청빙위 소속 위원들이 추천한자들 중에서만 후임자를 선정했다.

후보자 자격 조건은 교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개 나이는 50세 미만, 학력은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교회가 소속된 교단 산하 신학대학원을 나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정한다. 박사학위 소지 여부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기도 하지만 현대 교회에서 박사학위는 거의 필수사항이다. 여기에 담임목회 및 신학교 교수, 혹은 선교사 경력들이 포함된다.후보자가 선정되면 청빙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인선 작업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지만 보통 설교가 크게 작용한다. 이는 목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 된 대형교회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청빙위 위원들은 후보자들의 설교를 직접 듣고 분석해 교회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설교를 가려낸다. 이처럼 설교가 후임목회자 청빙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신학교 교수나 선교사들은 비록 후보자 기준에는 부합하나 최종 후임자로 낙점되는 경우는 드물다.

김진영 기자



지왕철 목사가 한보협 세미나에서 강의하고 있다.

“교회, 본질을 알면 재정 없어도 세울 수 있다”

한보협 세미나서 지왕철 대표회장 강조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 많은 공력을 쏟는다. 이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기도 하고, 심할 경우 문을 닫는 일도 생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와중에서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보수원형(保守原形)’을 찾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지왕철 목사, 이하 한보협)가 2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2차 성경 세미나 및 요한 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에 대해서’ 강의한 지왕철 목사는 “교회의 본질을 알면 재정이 없어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강

조했다.

지왕철 목사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으로 구약의 ‘카할’과 ‘에다’, 신약의 ‘회당’과 ‘에클레시아’를 꼽았다. 이것은 모두 기본적으로 ‘모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지목사는 이어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생명이고,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라며 “교회를 세우려면 재정으로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축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왕철 목사는 목양에 대해 “수천 수만의 무리를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돌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NCCCK 실행위서 교단들 격론... WCC 준비 난항



NCCCK 제3차 실행위원회가 21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열고 있다.

성공회측, 모든 조직서 불참할 것 공식 선언

오는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교단들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K, 총무 김영주 목사) 제3차 정기실행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실행위원들은 WCC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구성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 과정에서 각 교단

실무 대표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의 건이 었갈려, 향후 준비위 구성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NCCCK 회원교단으로 그간 준비위 구성에 협력해 온 대한성공회는 이날, WCC 총회 준비와 관련한 모든 조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조직위 구성을 둘러싸고 각 교단들 사이에 내재해 있던 갈등이 이날 실행위를 통해 수면 위로 표출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30일 제10차 WCC 한국총회 준비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 위원장단 명의의 공문이 올라프 트비트 WCC 총무 앞으로 보내지면서 불거졌다. 위원장단에는 김삼환 목사(위원장)와 박종화 목사, 이영훈 목사(이상 부위원장)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러자 기획위를 구성하는 3개 교단 위원들이 공문 발송의 절차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준비위 조직을 포함한 기획위 합의사항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3개 교단 위원은 한국기독교교장교회(기장) 총무 배태진 목사와 대한성공회(성공회) 교무원장 김광준 신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선교국장 사회선교부장 신복원 목사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문에 명기된 조직원 중 일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공문 발송에 있어서도 자신들을 포함한 기획위 위원들과 사전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성명이 발표되자 예상 통합총회(총회장 김경서 목사, 이하 통합)가 반박 성명을 냈다. 통합은 성명에서 “기획위가 (회의) 결과를 WCC 본부에 통보한 것을 문제 삼아 이제까지의

모든 합의사항을 폐기하고, 새로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격정과 우려를 넘어 무례하기까지 한 요구”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두 성명은 기장과 성공회, 기감의 3개 교단(이하 3개 교단)과 통합 간 갈등 양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실제 3개 교단이 성명에서 공문 발송의 주체로 통합을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의 성명이 나간 후 통합이 이에 반박하는 성명을 즉시 발표했다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상황이 격해지자 한 실행위원은 “교단 내부인사들끼리 WCC 총회를 준비하면 서로의 의견만 내세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며 준비위의 빠른 발족을 위해 시민단체 등 교단 외부인사들로 조직된 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NCCCK 김영주 총무는 비롯해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손인용 목사(덕수교회), 김명혁 목사(강변교회원로) 등 기획위 위원들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갖고, 오는 25일 준비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갖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조용기 목사, 최근 사태 관련 “꿈이 있기에 고통당해”

한국기독교부흥지도자회 월례회서 언급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조용기 목사가 최근 자신과 관련된 여러 상황과 관련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조용기 목사는 최근 교회 내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 중에 있으나,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잡음과 루머가 끊이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다. 급기야는 조 목사의 친필 서신으로 추정되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떠나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고, 일부 장로들이 사모인 김성태 총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용기 목사는 21일 한국기독교부흥지도자회(대표회장 배동운 감독) 월례회에서 설교하던 도중 “요사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

야기를 꺼냈다. 그는 “우리 부흥사역 회장단이 오늘 아침에 날 찾아와 ‘성명서를 내겠다’고 하기에 그러지 말라고 했다”며 “제가 나이 들어 은퇴했지만 꿈이 있기에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목사는 “저는 90세까지 살면서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꿈을 갖고 있다”며 “그러니 마귀는 꿈 있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기에 고통당한다”고 했다. 조 목사는 마지막으로 “옛 동지들이 함께 있었는데, 우리 다 오래 건강히 살자”며 “꿈을 가진 이들은 절대로 희망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그 꿈을 이루자”고 권했다.



조용기 목사

류재광 기자

미주개혁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I -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합니다.

▶ 모집학과 : 신학 선교 문예창작 종교음악 목회상담

학교주소: School Address, 3010 Wilshire Blvd #208, LA CA 90010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r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rmeduniv.org

포스트모던 시대, 기독교 제시해야 할 창조론적 윤리



조덕영 박사

포스트모던 시대, 기독교는 과학에 대해 어떤 기본적인 윤리 체계를 가져야 할까? 윤리란 좁게 보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그러한 도리를 찾는 학문입니다. 크게 보면 가치 불음 가운데 하나가 윤리입니다. 사람이 바라는 가치는 실용 가치와 심미 가치 그리고 도덕 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가치 추구 과정에서 반드시 윤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오늘날 과학과 기술은 실용적이며 심미적이며 도덕적 요소를 지니므로 실용 가치든 심미 가치든 도덕 가치든 이들 세 가지 가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속 과학의 체계는 윤리와 법칙과 실용을 쫓다보면 가치의 문제가 불거지고 반드시 윤리적 문제와도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세속 과학은 위험한 연구를 무조건 통제하거나 막으려 하지 않으며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현대 과학 윤리는 연구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엄청난 모멘텀(momentum)을 가지기 전에 그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미래의 위험이나 부작용을 걸러내기 위해 사전 경고를 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로런스(William. W. Lowrance)는 '현대 과학과 인류 가치'(Modern Science and Human Values)에 대한 논의에서 (1)사회적 가치는 과학에서만 유도될 수 없으며 (2)지식은 선과 악에 다 쓰일 수 있으나 가치 중립적(value free)이지 못하며 (3)새로운 지식이 나타날 때 그것의 쓰임새에 주목해야 하며 (4)기술 활동이 기술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대중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가치 의존적이며 (5)기술 전문가들은 대중의 입장에서 대중을 위해 결정을 내

려야 하며 (6)과학이 문화적 전망을 바꾸거나 인간의 마음과 육체와, 우주, 인간 사회의 관념을 바꾸어버리거나 서로 다른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인류의 세계관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들 여섯 가지 명제를 정리하였습니다. 로런스는 현대 과학이 필연적으로 가치의 문제와 부딪히게 마련임을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리적 논쟁이 반드시 쟁점이 됩니다. 레스닉(David Resnik)은 자신의 12 가지 과학 윤리 강령에서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의 사회적 결과를 판단하고 대중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이 결과가 해롭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세속 윤리학자나 과학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과학의 윤리 문제는 가치 중립(value free)적일 수 없음을 분명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진리보다 도덕적,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시대의 윤리적 특징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현대 과학과 관련된 많은 윤리적 이슈들을 발생시키는 것이지요. 복음주의 신앙은 포스트모던적일 수는 없으므로 우연론적 윤리가 아닌 창조 신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적 체계와 기준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윤리 체계의 기준이 있는가(윤리의 기준점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우연론적 진화론적 윤리가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을 전제하고 윤리를 인류 스스로 만들어낸 윤리임을 표방하는 데 반해, 창조론적 윤리는 모든 윤리적 체계의 시작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립니다. 세속 윤리가 우연과 우연론적 진화에 뿌리를 둔 반면 창조 윤리는 뿌리와 기준을 가지는 데, 창조론적 윤리는 바로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 체계의 근원으로 봅니다. * 이 글은 조덕영 박사의 '창조신학연구소' 홈페이지(www.kictnet.net)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윤항기 목사 “임재범의 ‘여러분’ 이 화제가 된 이유는...”

‘위로와 공감’, 교회가 대중과 소통하는 접착점

교회의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기독교 문화 활성화의 핵심



'나가수'에서 화제가 된 가스펠 '여러분'의 작곡자 윤항기 목사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여러분’ 노래 가사 중)

최근 ‘나는 가수다’(이하 나가수)라는 경연프로그램에서 임재범이 불렀던 ‘여러분’이 화제가 됐다. ‘여러분’은 윤항기 목사가 동생 윤복희를 위해 기도하면서 작곡한 가스펠이다. 1979년 국제가요제를 통해 발표된 이 곡은 장년층들에게 잘 알려진 노래지만 임재범이 부른 후, 10대 청소년들까지 따라부를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녹음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임재범의 자전적 스토리와 맞물려 ‘여러분’은 따뜻한 삶을 살며 ‘위로’를 바랐던 대중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사실 ‘나가수’에는 임재범 뿐만 아니라 박정현, 김범수 등 기독교인들의 출연 비중이 높다.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정작 기독교 문화는 침체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분’ 같은 가스펠이 더 많이 나오고 기독교 문화가 활성화되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난 19일 예음음악신학교 총장실에서 만난 윤항기 목사는 “권위주의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리지 못하는 한국 기독교의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기독교 문화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목사와의 인터뷰 전문.

“나가수”를 통해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곡 ‘여러분’이 화제가 됐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1979년 국제가요제 대상을 수상하면서 알려진 곡이기 때문에 30대 이하 세대는 이 곡

을 잘 몰랐다. 임재범이 다시 불러 젊은 세대들이 이 곡을 알게 됐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는데 현지에서 만난 목사님의 아들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따라부르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 전 국민이 ‘여러분’을 알게 된 셈이다. 임재범의 무대는 감동적이었다. 그는 지난 날 감추었던 자신의 아픔과 힘든 삶에 대한 절규와 통곡을 노래한 듯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살 만한 호소력이 있음을 알게 됐다.”

“나가수”에 등장하는 가수들 중 기독교인 비중이 높다. 인재들은 많지만 정작 기독교 문화는 침체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복음은 우리를 ‘위로’한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렵고 힘들 때 삶을 지키시고 위로하신다. 사실 이 시대가 가스펠이나 CCM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한국 기독교는 전통과 구습에 젖어 여전히 구시대적이고 보수적이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고 있으니, 교회가 이 세대들 ‘위로’할 수 있는가. 노래 안에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 위로를 있는데 그저 ‘음악’으로 치부한다. 찬양사역자나 음악목회자에 대한 대우도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앞만 보고 가는 경주마처럼 독주하지 말고,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야 한다. 가수 한 사람이 방송에서 불과 3-4분 동안 부른 기독교 대중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위로를 전했는가.”

“기독교음악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속된 말로 ‘히트’하려면 시대적으로 공감을 살 만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교회 안과 밖에서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

요 접착점은 ‘위로’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성장하다보니 위로와 사랑을 소재로 한 곡을 많이 작사했다. 인생의 경험과 토대를 가사에 반영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몇 년 전 김석균 찬양선교사가 발표한 ‘힘을 내세요’라는 가스펠은 당시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로했다.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 곡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기독교문화를 활성화하려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문화사역은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홀하거나 천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일례로 집회를 인도한 찬양사역자를 ‘잡상인’ 취급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한다. 문화사역자가 공연이나 집회를 인도하면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그들이 발표한 CCM앨범도 적극적으로 구매하면 도움이 된다. 기독교 문화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청된다.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로’하는 기독교 문화가 필요하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나. ‘웃 생각서 죄송합니다’라며 넘어지고 깨지는 이주일의 희극을 보며 사람들은 즐거워했다. 이주일 씨는 실제로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지만 코미디언으로서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했다. 교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낮은 곳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로하는 사명을 부여 받았다. 한국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가수들이 오히려 평가를 받겠다며 나서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다. 나는 목사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자신 있게 출연할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

이미경 기자

20만 국외 입양자, 생애 주기별 정책 있어야

“뿌리찾기와 장기체류 생활 지원 등 필요”

홀트아동복지회(회장 민경태)는 21일 홀트 모국 연수 20주년을 기념해 '입양인으로 한국에서 살기'라는 주제로 국외입양인들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마포구 서교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민경태 회장은 “한국에서 살기 원하는 국외입양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듣고, 함께 발전적인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박미정 교수(대원대학)는 입양 사후서비스 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2009년까지 국내의 총 입양인 235,630명 중 국외입양인은 162,683명으로 69%에 해당하며, 매년 3천7백여 명이 모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외입양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연수, 모국 방문, 입양인 센터, 장기체류비자(F4) 발급, 이중국적 허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민간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홀트아동복지회는 21일 홀트 모국 연수 2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신태진 기자

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모든 입양 사후서비스를 직접 총괄하고 있다. 앞선 2008년 '국외 입양인이 바라는 정책지원은 무엇인가'를 묻는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뿌리찾기가 61%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험 7%, 모국어 연수 6%, 취업 지원 6%, 비자 및 공공서비스 지원 6%, 재정 지원 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 이전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성인 입양인들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나타나, 국외입양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교수는 “입양국가의 현지적응 및 모국과의 관계유지 프로그램, 뿌리찾기 지원 시책, 장기체류 국외입양인 생활지원 프로그램 등 해외입양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며 “해외 입양인 지원은 생애주기별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해 건강한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태진 기자

눈이 침침하십니까?

[죽침]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원 대학 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초진 무료! T213-380-0853

진유철 칼럼

선한 목자와 함께 하는 평화



진 유 철
나성순복음교회 목사

최근 한 한국 아기의 평화로운 미소가 100만 세계인의 얼굴에 미소를 선사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와~ 얼마나 근데 좋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린 한국 아기 동영상 일주일간 조회 수가 급증, 7월 16일 현재 123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곧하 자고 있는 아기에게 엄마로 추정되는 영상 제작자가 다가가 비디오킴라를 들어줍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아기는 고개를 들어 엄마의 얼굴을 보고는 활짝 웃으며 반가움을 표시하는가 싶더니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이내 다시 잠에 빠져듭니다. 잠시 자는 듯 하던 아기는 다시 일어나 활짝 웃고, 이후 졸고 깨기를 반복합니다. 단 몇 초 간격으로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는 것인데도, 아기는 볼 때마다 반가운 듯 엄마를 향해 해맑게 웃습니다. 전 세계인이 다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평화는 돈이 많아서, 좋은 옷을 입어서, 권력과 힘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난한 집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 그 길로 부잣집으로 데리고 가 돈 주고 좋은 옷 입히면 행복하고 평화가 넘쳐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아기의 평화로운 미소는 엄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비인격적인 물질로부터 생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상장을 받고 우승컵을 받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도 참된 평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 영원한 평화는 유한한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연약한 어린 아기의 평화가 그를 위해 생

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도 유한한 인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쇠해지게 마련이고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화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목축을 하는 중동에서는 풀을 찾아 목자와 양들이 먼 길을 떠나 몇 날 며칠이고 야숙을 하게 됩니다. 들과 산에는 사나운 맹수나 도둑이 많이 있어도 연약한 양들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시므로 누구든지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만으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하여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풀을 받아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풀을 먹지 않고는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갈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베데스다 대학의 TRACS 재인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10년의 발전을 위한 일기기에 교직원들은 몇 달 동안을 서류 및 실사 준비를 해 왔고, 한국과 미국 다른 지역에서도 8분의 이사들이 참여하고, 많은 교수들과 동문들과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어려운 심사를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통과하였기 때문에 얻는 만족보다 목자이신 주님이 순간순간 함께 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였기 때문에 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누가 누구의 허물을 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계속하여 진리의 풀을 날마다 먹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양들도 평화롭게 살듯이 우리는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김세환 칼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좋다”



김 세 환
LA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

남자들의 바지는 허리의 모양을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름이 있는 바지”와 “주름이 없는 바지”입니다. 허리선에 세로로 난 주름이 없는 소위 일자바지는 허리에 군살이 없고 키가 크고 날씬한 사람을 위한 옷입니다. 옷 맵시도 뛰어나고 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배들레행’이 많은 사람들은 일자바지가 불편합니다. 허리춤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간신히 꿰맞춰 입지만, 앉거나 일어설 때 순간적인 압력으로 배가 윗배와 아랫배로 나누어지면서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바지의 천이

아직 새 것일 때는 괜찮지만, 여러 번 세탁해서 입게 되면 언제 폭발(?)할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름바지는 천이 겹쳐 있어서 조금 과하게 식사를 하거나 순간적인 동작을 할 때 주름이 퍼지면서 옷이 팽창하는 것을 막아 줍니다. 참 편안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청바지 같은 딱 끼는 바지를 잘 입었는데, 이제는 허리에 주름이 여러 겹 잡힌 주름바지가 편안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많이 불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바지뿐만 아니라 모든 옷들이 여유가 있는 넉넉한 옷이 좋습니다. 특별히 보여 줄 것도 없는데, 곡선미를 살리고 상상의 나라를 꾀게 하는 짝 붙는 옷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안정감을 주는 옷이 저나, 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좋은 느낌을 줍니다. 옷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격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부드럽고 넉넉한 사람들이 좋습니다. 젊을 때는 소위 ‘까도남’(성격이 깐깐하고 도도한 이기적인 남자를 이르는 은어)이나 ‘도도녀’(차갑고 날카롭지만 뒤는 외모를 가진 젊고 화려한 여자를 이르는 은어)같은 사람들이 매력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온화하고 자상한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른 사

람들의 실수나 허물을 자신의 넓은 주름으로 감싸 줄 수 있는 따뜻함이 묻어나는 분들이 참으로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조금 어리숙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자꾸만 옆에 가고 싶은 분들이 좋습니다. 얼굴에 밥풀 하나 붙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깐깐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자라’의 움츠린 목을 뻗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라’가 그만큼 힘이 세고, 질기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라’를 따뜻한 난로 옆에 갖다 놓으면 5분도 안 되어서 목이란 목을 있는 대로 다 빼고 졸고 있답니다. 돼지도 자빠뜨리려고 하면 짧은 다리로 얼마나 잘 버티는지 모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끄덕도 안 합니다. 하지만 돼지에게 다가가서 배배기를 쓰다듬어주고, 등어리를 긁어주면, ‘꿀꿀’ 하면서 팔다리를 다 뻗고 알아서 스스로 자 빠집니다. 동물들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삼으로 딱 두기를 담가 먹은 사람처럼 열기 충만한 ‘뽕뽕이’보다는 풀죽도 못 먹은 것 같지만 항상 인자하고 온화한 ‘뽕뽕이’가 언제나 사랑을 받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김영길 칼럼

손상된 관계의 수선



김 영 길
감사한교회 목사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수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에는 언제나 충돌과 오해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관계를 수선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머지않아 화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관계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끊어진 철로처럼 천년 세월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님의 사람들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열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화목시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관점이나 의견은 접어두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리로 들리는 말뿐만 아니라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단절된 관계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말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들면 결국에는 말싸움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려면 사랑의 날갯짓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람은 좋은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삶 속에 기념할만한 일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축하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상처 위에 기름을 바르고 싸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만나기가 속스러운 관계라도 조그만 엮서 한 장, 짧은 이메일 한 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 저 건너편에서 있는 사

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강력한 사랑의 날갯짓이 될 것입니다.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려면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꽃 한 송이를 보냈다고 하여 즉시로 장미꽃 100송이가 배달되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와 화목 시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무관심하고 외면했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처받는 시간은 짧지만 수선하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무관심과 의심, 그리고 망설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면,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될 것을, 그렇게 애쓰면서까지 손상된 관계를 수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필요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망가진 관계가 수선되고 회복된 후에 느끼는 행복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플러튼, 가든그로브, 엘바인 웨이스 기독교 대학교 신학대학원 satellite 신학교 개강

웨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

SEVIS
I-20
상담

2011년 봄·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1. 웨이스기독교대학교 신학대학원(노년 매노하 총장)은 1937년 개교(2011년까지 74년간)한 유서깊은 신학교로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2.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특전: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 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3.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4.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5.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6. 통신강의 (아카데미 학위취득)

- ①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③ Lee University
- ⑤ Oral Roberts University

- ② Indian University
- ④ Liberty University
- ⑥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div style="background-color: #FF0000;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생 대환영 • 타신학교 학점인정 </div>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P.M)	96	신학사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M.Div)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수료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64		
상담학 Ph. D.	64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어온 전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를 지원받으십시오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수시접수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213) 503-5330 수시접수

송택규 칼럼

기독교는 양심의 주인을 찾는 운동이다



송택규
유인신학대학 학장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만들어 함께 즐기시기를 원하셨다. 인간 창조의 과정을 보면 모든 원소들의 실제인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더니 생령이 되었다고 하셨다.(창2:7) 여기서 '생'(生)은 '날생'으로 혼적인 한 생령이 탄생되었다는 의미이고 '기'(氣)는 기운기자로 어떤 생동하는 움직이는 영적 바람(energy) 또는 power를 불어 넣었다는 의미인데 성경은 그것을 더 명확하게 그 생기(生氣)가 '생령'(生靈)

이 되었다고 하셨다. 바로 이 생령(生靈)의 생(生)은 인간의 혼적인 생령을 말하고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생령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성요소는 영과 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신 자리에 혼적이 남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른다. 이 생령님의 혼적인 양심 때문에 우리는 어렵잖아도 선(善)을 알게 되었고 신(神)에게로 돌아갈려는 종교적 마음을 갖게 됨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지키게 된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태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계셨던 혼적이었다. 이 혼적을 예를 들어 말하면 '뜨름'이라 할 수 있는데, 뜨름은 불을 때다 보면 불길의 닿은 주변에 꺼렇게 불길의 흔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 뜨름은 여간해서는 지워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태어나면 서부터 성령의 혼적인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바로 이 양심의 실체는 성령님이시고 그 주인도 성령님이시다. 바로 기독교는 양심의 실체인 주인을 다시 모셔드리는 양심회복운동이며 구원의 종교라 할 수 있다. 이 양심의 실체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들은 양심대로 살 수가 없다.

성요소는 혼과 육신만 남게 되었다. 이것은 짐승과 같은 구성요소로 성경은 범죄 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을 가리켜 짐승의 숫자인 666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신 자리에 혼적이 남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른다. 이 생령님의 혼적인 양심 때문에 우리는 어렵잖아도 선(善)을 알게 되었고 신(神)에게로 돌아갈려는 종교적 마음을 갖게 됨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지키게 된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태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계셨던 혼적이었다. 이 혼적을 예를 들어 말하면 '뜨름'이라 할 수 있는데, 뜨름은 불을 때다 보면 불길의 닿은 주변에 꺼렇게 불길의 흔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 뜨름은 여간해서는 지워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태어나면 서부터 성령의 혼적인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바로 이 양심의 실체는 성령님이시고 그 주인도 성령님이시다. 바로 기독교는 양심의 실체인 주인을 다시 모셔드리는 양심회복운동이며 구원의 종교라 할 수 있다. 이 양심의 실체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들은 양심대로 살 수가 없다.

보험 칼럼

메디케어 카드 받으려면



폴 선
시니어 전문 플래너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올해 7월(7월 46년생)에 65세가 됩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하려 갔더니 점수가 부족하여 별도로 비용을 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메디케어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답) 메디케어 건강 보험은 1965년도에 연방 정부에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을 위해 제정된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는 Hospital(병원보험) - 파트 A, Medi-

cal(의료보험) - 파트 B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 A와 파트 B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릅니다.
·Hospital(병원보험) - 파트 A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40쿼터(10년)이상 페이로 텍스 보고를 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텍스보고기간이 30쿼터(30점)가 안되시는 분들은 2011년 기준 매월 450불을 지불하시고, 텍스 보고 기간이 30~39쿼터(30~39점)인 분들은 매월 248불을 지불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Medical(의료보험) - 파트 B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수업 개인 8만 5천불 부부 17만불이하인 경우 매월 115불 40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일 특별한 이유없이 파트 B 신청을 앞뒀을 경우 평생 페널티를 별도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의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달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취득하신 분들은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시고 처방약 보험 파트 D구입을 필요로 합니

다. 지금 당장 약을 복용할 일이 없더라도 처방약 보험 파트 D구입을 미룰 경우,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평생 페널티를 부담하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취득하신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으시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0%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월 일정비용을 지불하시고 GAP 보험(보조보험)가입을 필요로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취득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취득하실 분들은 처방약 보험 파트 D와 GAP보험(보조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처방약 보험 파트 D 혜택과 병원 입원시 디터탈이나 입원인수의 제한이 없고 의사방문도 무료이며 치료, 한방진출, 안경 등의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주치의의 통제를 진료 받을 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이나, 주치의와 전문의 선택이 자유로우나 의사방문시 코페이먼트가 있는 PPO 플랜 등을 전문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 : 폴 선 (수호천사 보험 시니어 전문 플래너) 213-503-6897

건강 칼럼

현대인의 균형식생활 어떻게 할까?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 문명의 이기는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과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심각한 공해와 환경오염,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운동부족과 생존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몸이 좀 이상해 병원에 가서 최첨단 기계로 종합검사를 해보아도 별다른 이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여전히 몸은 피곤하고 자주 아프기만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질병이 현대 병의 특징입니다. 한 번 질병에 걸리면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난치병들 이어서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끊임 없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지만 문명이 해결 되는가 했더니, 또 다른 슈퍼질병에 인류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약 2,500년 전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선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현대의학에서도 아직까지도 진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270여명의 석학들이 2년여에 걸친 조사와 연구 끝에 5,000페이지에 이르는 현대병의 원인에 관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보고 하였는데 그 보고서가 현재 현대병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는 맥거번 보고서입니다. 1977년1월4일 미 의회의 단상에서 울면서 보고했던 이 보고서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류는 현재의 식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한다." 라고 경고하고 우리인류가 먹지 않아야 할 5대 식품으로 흰 설탕, 흰 소금, 흰 화학조미료, 흰 밀가루, 흰 쌀(백미)을 인류 최대의 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우리 인체는 자연적인 조화와 여러 가지 묘미가 합쳐져서 모든 세포가 재생 된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병을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또한 회의적이라는 사실을 일반인이나 의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지 이것 또한 심사숙고 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상태의 식품을 그냥 섭취해서 먹는 것입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 섭취하시는 열성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 식품을 선호하게 됩니다. 수많은 식품 중에서 화학 약품을 사용

하지 않은 재료가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료 자체에서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채취과정과 가공과정에서 분쇄되어 산화되어 버리면 영양분이 현저히 파괴 되어 실제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은 잘 알면 최고의 보약이지만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방법대로 흰 쌀밥을 계속 드실 경우, 백미식은 산성식품으로 우리 몸은 산성체질이 되고, 혈당수치는 높아지고, 독소가 몸 속에 쌓이고, 잉여 영양분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그래서 현미식을 권장해 드리고 있기에 현미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미 밥을 지어 먹을 때 쌀을 익혀서 먹기 때문에 열에 약한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파괴 되어버립니다. 3대 영양소(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는 열에 무관하여 불에 익혀 먹어도 영양분이 파괴되지 않지만, 비타민 같은 효소류 등은 섭씨 35~65도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심히 현미밥을 지어 먹어도 불구하고 먹은 음식이 불 완전 연소가 되어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 가공과정에서 미세하게 분쇄시키거나, 24~48시간이 지나면 비타민은 산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 그대로, 살아있는 영양소를 가공과정에서 최대한 보존된 상태의 식품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고, 이것이 주식회사 세충허브의 비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미식을 하면서도 현미식보다 효과적이고 월등히 좋은 균형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균형식생활입니다. 이 균형식생활은 현미, 밀, 팥, 검정콩 등 곡류의 호분층 및 배아층을 도정 즉시 천연산화 방지제인 사포닌을 주성분으로 하는 농축액으로 혼합하여 자연 건조 방식으로 섭씨45도 이하에서 저온 냉풍 건조를 시킨 기능성 건강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용성 비타민에 영향을 주는 물을 혼합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소맥분등의 혼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균형식생활의 특징이요, 선진기술입니다.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이미 그 효능의 탁월성이 입증된 균형식생활을 권해드리오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website 를 방문 해 보시고 문의 해 주시면 성심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주)세충허브 균형식생활 미주 지역 총판 분부 지사장
안드레 윤 드림. 문의: 213 - 272 - 4454. web-site : " www.seedcure.info"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탈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합법적 집 · 차압방지

\$500 FLAT ★ N.O.T와 N.O.D 전문 ★
A.I.T.D./WRAP(모게지 "합법양도")
최장 36개월 연장 "합법거주" (본인파산 불필요)
★ 각종 민사소송, 불법퇴거소송, 파산법전문 ★
MERITZ CORP. / 마이클 J.D
상담 : 888-210-1238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에어 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문장금 & 타이어 문제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 926.1243 / (213) 435.5736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4월 29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봄/가을학기 숙성과정 학생모집 (학식,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만자, 재취업 기술교육

NEW HOPE CONTRACTION & PAINTING

APARTMENT RESIDENTIAL COMMERCIAL

- INSIDE REMODELING REPAIR PAINTING
- 전기, 플러밍, 목수, 모든 HANDYMAN WORK
- OVER 20년 경력, 모든 일 WARRANTY 해드립니다.

Tel. 310-756-9511

썬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러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 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Select color - 기독교일보 애독자 특별할인 -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질리움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10'x10')(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ttless Shelving

마케팅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323)855-5687 / (213)200-3050

금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노드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실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JJ 플러밍 땀 뚫어요!

-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 나무 뿌리로 지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 싱크대, 욕조, 변기 등
- ▶ 노후된 파이프를 등 파이프로 교체
- ▶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 각종 Faucets, 디스포설,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무료가입 및 설치문의 www.knamedia.com

1.888.894.8949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험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 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명 치과 SANG DON CHOI-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이중창문교체전문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욕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2011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8월 1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월드크리스천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대학원 (M.Div) 과정
통신학부, 목사후보생 모집 및 교육
유학비자발행 (방문비자무료변경)

TEL: (323) 734-022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두란노대학교·신학대학원
목회학 · 신학 ·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o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목사 | TEL: (213) 507 - 1933
1008. S. Kingsley Dr LA, CA. 90006



유인신학대학,신학대학원
YUIN UNIVERSITY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TEL : 213-663-8640 FAX. 213-384-7898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플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323-731-9819
1325 12th Ave. LA, CA 90018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p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이·톡·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중앙일보/엔터테인먼트/한국경제/스포츠/IT/뉴스/이슈/리뷰/특종/인터뷰/취재/특종/인터뷰/취재/특종/인터뷰/취재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성공! 이벤트로 드립니다!

지금 가입하면, **3개월 무료!** (최대 \$105 상당)

행사기간 2011년 7월 31일까지

AT&T, Verizon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는 유지하고 싶지만 높은 기본요금 때문에 걱정하신 분
- 평소 미국·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 한국 등 국제전화를 많이 거시는 분
- 외출시에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국제전화를 걸기를 원하시는 분

Global Unlimited Plan | \$24.99
글로벌 플랜 (기타 수수료 포함)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전화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 음성사서함, 발신자표시, 114 한인업소 안내
-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 무료제공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넘버** **+ 무료!**
한국 070 전화카드 필요 없다!
한국 전화 번호 제공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전화카드 가능 매일 500분 제공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1.800.872.2902**
아이토크비비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30일] 환불 보장!

*평창동계올림픽유치성공이벤트 -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8개월 간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가입한 신규 가입자에 한 합니다. 계약 기간 내 서비스를 예치하시는 경우 유약금(\$69.99)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보상 포인트 적립을 할당해 드립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 넘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해지시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월별 (\$39.99)가 부과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관련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 365일 오전 9시~생백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하셔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장에서 신규 아이빔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 **703.349.7216**
동시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2011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월드미션대학교, ATS 인준 받다!”

월드미션대학교는 2011년 6월 대학원 과정에 대한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신학대학원협의회)의 인준을 취득했다. ABHE와 TRACS에 이어 ATS의 인준까지 받음으로써 월드미션대학교는 학부와 대학원 전체에 걸쳐 미 교육부 산하 인준기관의 정식 인가를 모두 받은 미 서부 최초의 한국계 기독교 대학교가 되었다.

새로운 꿈을 위한 시작! 월드미션대학교와 함께

1. 미군 군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군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 ▶ 황지용 미군대위
 - 2011년 목회학석사 졸업생
 - 현재 하와이에서 군목으로 복무
- ▶ 김명환 미군 군목 후보생
 - 현재 목회학석사 재학중
 - 독일에서 복무

2. 통신 과정으로 미 정규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이 과정을 통하여 학사 129명, 신학석사 17명, 목회학 석사 152명이 미 정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유아교육교사/원장 자격증 과정과 가정상담 사역자 과정을 다수의 학생이 마쳤습니다. 현재 100여명의 재학생이 통신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3. 펠 그랜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부 과정).

펠 그랜트(Pell Grant)는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2011년 가을학기에 50여명의 학부생이 이 혜택으로 학비 걱정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 학생 용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부, 대학원 과정).

학생 용자는 학부, 대학원 모든 과정에 가능하며, 졸업 후 낮은 이자로 장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가을학기에 10여명의 재학생이 장기 학생용자 혜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5. 상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상담 훈련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 지역 사회를 위한 상담 사역자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가정사역 상담자, 목회 상담자로 교회와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6. 타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바이올라 대학교, 탈봇신대원, 풀러신대원, 아주사 신대원, 클레어몬트 신대원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졸업자가 UCLA 합창지휘 박사과정, Peabody Institute 연주자 석사과정에 진학하였습니다.

7. 학위 과정

▶ 박사 과정

- 목회학과 (D.Min / 유학생 I-20 발급)

▶ 석사 과정

- 목회학과 (M.Div)
- 신학과 (M.A)
- 음악과 (M.A.M)

▶ 학사 과정

- 성서신학과 (B.A.B.S)
- 기독교 상담학과 (B.A.C.C)
- 음악과 (B.A.M)

▶ 단기 과정

- 가정상담 사역자 / 유아교육 교사 / 유아교육 원장 과정

● 원서 접수마감: 2011년 8월 12일(금) ●



(213) 388-1000 SEVIS I-20 발행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admissions@wmu.edu

